

지역 매 아 리

완주군,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완주군이 관내 안전관리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완주군은 이날부터 4월 19일까지(61일간) 건축시설, 교통시설, 생활여가 등 6개 분야 총 390여개 시설을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사회전반에 걸쳐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있다.

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안전관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각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국민은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주변의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 신고 등을 통해 국가안전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다.

완주군은 최근 스포츠센터 화재 및 강릉 펜션 사고 등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점검에서 보다 대대적이고, 세밀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토록 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사안별로 차별화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대진단 기간 동안 민관이 힘을 합쳐 점검을 충실히 추진하길 바란다"며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김제시는 18일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 상황실에서 축산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정보를 공유하였고, 특히 최근 경기 안성,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유입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또한 2019년 가축방역사업과 관련하여 축종별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구입 등 약품 지원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협의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약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강달용 축산진흥과장은 "농가와 단체, 기관 등이 함께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AI와 구제역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있지만 야생조류에서 여전히 AI 항원이 검출되고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구제역·AI 방역 대책에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5.18 망언 한국당 목과해선 안돼"

완주군의회, 5.18민주화 운동 애곡·평혜 강력규탄 성명서 발표

완주군의회는 18일 의회 앞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폄훼한 자유한국당 일부의원의 반역사적 망언에 대한 강력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8일 민의의 정당 국회에서 "5.18 유공자를 세금을 축내는 괴물집단지아라"하고, "5.18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며 반역사적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국회의원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국민들은 이를 목과해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번 5.18망언 논란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일련의 조치는국민들의 기대를 철저히 외면하고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공분만 피해보려는 진정성 없는 폄소정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완주군의회는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제명초치는 물론 이들의 공개 사죄와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책임있는 행동 및 재발방지 노력을 강력 촉구했다.



완주군의회는 18일 의회 앞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폄훼한 자유한국당 일부의원의 반역사적 망언에 대한 강력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최동원 의장은 성명서 발표에 앞서, 5.18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장이던 로슬린 러셀박사의 연설 일부(민주화 운동으로 시작되었다가 무질서한 난동으로

변질되곤 했던 다른 나라들과 달리(중간생략) 시민 스스로 공동체 유지와 질서를 지켰던 유례없이 높은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한다)를 재 낭독함으로써, 의원들과 함께 5.18정신을 가슴에 새겼다. /원주=이종복 기자

완주, 여름딸기 재배 등 3개 사업 북측 제안

박성일 군수, 지난 12일 남북공동선언 이행 연대모임 참석

북측 "향후 대북제재 풀리면 지자체 교류 방향 결정될 것"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참석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일정으로 금강산을 다녀온 박성일 완주군수는 18일 '남북 교류에서 중요한 것은 농업교류인

만큼 이번 방문에서 여름딸기 재배 사업과 신품종 배 과수원 조성, 우량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방문은

'관문점 공동선언 및 9월 평양 남북공동선언' 이후 그 이행을 위한 새해맞이 모임이었다"고 전제, "전국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정당, 교육청, 공역단체, 기초단체 등 7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자체간 교류 희망 의사를 전달하고 지역별 사업을 제안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완주군을 포함한 기초단체들은 또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를 위한 단일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군수는 "북측에서는 지난 2008년에 진행했던 민간 차원의 교류사업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북측은 '대북제재가 풀려야 지자체의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박 군수는 "북측은 또 남측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도 했다"며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풀리는 속도에 따라 지자체의 남북교류 방향과 속도 역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지자체 교류를 위한 제안 사항을 미리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박성일 군수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참석했다.

"학생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김제사랑장학재단, 내고장학교보내기 격려금 증서 수여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박준배)은 성적 우수 중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지급하는 내고장학교보내기 격려금 증서를 각 중학교 졸업식장에서 수여했다.

인재양성과(과장 최니호)에 따르면 관내 8개교 45명에게 격려금 증서를 수여하고, 격려금 대상자들에게는 성적에 따라 중학교 성적 상위 5% 이내인 학생에게는 200만원, 10% 이내인 학생에게는 150만원, 15%이내인 학생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여 총 6천5백여 만원을 지급한다.

2019년 성적 우수중학생의 관내 고 진학률은 56%로 이는 김제사랑장학재단 설립 당시 22.3%(8년 전 진학률에 비해 33.7%p 상승해 내

고장학교보내기 격려금제도의 효과가 푹푹 나타나고 있다.

최니호 상임이사(인재양성과장)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성실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며, 관내에서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에게 격려금을 주게 되어 다시 한번 장학사업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생들이 이 격려금이 발판이 되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제사랑장학재단은 현재 300여 명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및 과감한 장학금 지원, 지평선학당 운영 등 지역우수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장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새일센터, 홍보전담 새일-서포터즈 2기 모집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신미란)에서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18일부터 28일까지 새일-서포터즈 2기를 모집한다.

선발인원은 10명 내외이며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및 구직등록을 한 여성에게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해 안정적으로 일자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새일-서포터즈로 선정되면 새일센터

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SNS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

오는 3월 5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추후 활동 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간담회와 연말 평가회도 가질 계획이다. 접수방법은 김제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새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3월 4일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김제시보건소는 19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경증치매 및 경도인지저하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상반기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뇌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의 지남력, 기억력, 집중력, 실행기능을 높임으로써 인지능력을 개선하여 일상생활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가 함께 참여하며 매주 3회(화, 목, 금요일 9:30~11:00) 김제시보건소 치매안

심센터에서 총53회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들과 연계하여 뇌 활성화 및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치매예방 및 인지기능훈련, 미술 및 원예치료와 인지강화재활훈련, 정서지원, 음악과 함께하는 신체기능 증진 활동 등 전문적이고 특화된 활동을 제공한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새롭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치매 증상을 지연시키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